

사회

2015 광주U대회 시민의 힘으로

노상 적치물 '인도 실종' 단속 한계... 의식 전환을

② 도심 길은 도시문화

“물품 적치장인지, 인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부 김모씨(43·광주시 북구)는 광주시 북구 말바 우시장 주변 인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불법 적치물과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에 혀를 내둘렀다.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한 '인도 실종' 사례는 광주 도심의 일상 풍경일 정도로 만연돼 있다.

실제 광주시가 올 상반기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한 인도실체를 조사한 결과 5개구 통틀어 3천 325건이 지도·단속됐다.

또 상가 앞 인도에 진열된 중고 물품 1천704건, 오토바이 정차 600건, 파라솔 368건이 단속됐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이같은 인도 불법 점유를 꾸준히 지도·단속하고 있어 다수 줄기는 했지만, 솜바꼭질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생계형 노점상들의 경우 단속 기간 동안 좌판을 거둬다가 단속

을 상반기 3,325건 단속 노점에 차량까지 버젓이 수준높은 문화 보여줘야

이 뜰할 때 다시 인도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 기관에서 불법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항시 지도 감독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수준 높은 도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영기기자 penfoot@



지산중 1학년 1반 '평화의 집' 돕기 공연. 광주 지산중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이 29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비인가 장애인 시설인 '평화의 집'을 돕기 위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갈등의 해 “소통 부재” 자성

광주 시민사회단체 송년 한마당 ... 일상에서 민주정신 실천 다짐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NGO센터에서 열린 '2009 송년 시민사회단체 한마당'에서는 올 한해 광주 시민사회를 되돌아보는 시민운동가들의 자성어린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영일 광주·전남 교육연대 대표는 “환경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 교육의 황폐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 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 사이 중재역할을(시민사회단체가) 맡을 수 있고, 상이한 이해관계자들 간 중재에서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또 “서울에서 많은 시민 운동가들을 만나면서(그들이) 광주 시민사회의 향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광주 시민사회가 한국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시민사회의 제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송년 한마당'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2010년을 준비하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기 위해 광주NGO센터 등이 마련했다.

“한 해 동안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에게 ‘민주화의 성지’라는 타이틀은 커다란 명예임과 동시에 멍에”라며 “우리가(광주 시민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영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선 일상에서 민주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위협하는 4대강 사업, 교육의 황폐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 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조선대 등록금 2년째 동결

전호중 총장 “정상화 지역민에 감사... 고통분담”

조선대학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한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은 29일 “올해 등록금 동결로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선대학교 법인 정상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010 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전액 장학금 대상자 400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장학금 수혜 폭은 오히려 14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인건비 인상 자제, 신규 사업성 예산 축소, 단위부서별 예산 절감 등 초진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 달라진 지자체 중·시무식

대부분 통합 간소화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무식과 시무식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등 송년·신년 행사를 간소화하고 있다.

남구는 30일 오후 2시 남구 봉선동 봉선시장에서 '장보는 날' 행사를 연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각

종 음식으로 실·국별로 조출한 다과회로 중무식을 대신기로 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축년 구정 주요 업무 목표가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였다”며 “직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북구는 31일 중무식을 연 뒤 직원들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연하장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형식적인 중무식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

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시무식은 내년 1월 4일 조출하게 열어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서구 역시 매년 구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중무식 행사 후 구내 식당에서 별도의 다과회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부서 단위로 치른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with a map of Korea and temperature data for various cities.

Local news and events section including '송년·신년행사 다채' and '전남 주요 해맞이-해맞이 행사'.

Large advertisement for '심봤다!' (Simbwadd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red, textured food item and promotional text.